

'남도답사 1번지 관광택시' 포문 열어

'남도답사 1번지 관광택시'가 발대식에 이어 지난 5일 첫 손님을 맞이하며 포스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500만 관광객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남도답사 1번지 관광택시의 첫 손님은 서울에 거주하는 김준연 씨로 강진 무위사, 백운동 원림 등 하멜원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강진을 찾았다.

택시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기사님들의 깊이 있는 해설을 듣기 위해 관광택시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관광택시 첫 손님인 김준연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진군 관광기념품과 우리 지역 화훼농가에서 재배하는 장미 꽃다발을 전달했다.

집계된 관광경기 회복과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은 앞으로 관광택시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강진군, 베테랑 드라이버 안내...총 8대 운행
소규모 관광수요 증가·대중교통 이용객 대상



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택시 안 손소독 용품을 구비해 운행을 추진하는 한편, 관광택시 탑승객에게 선착순으로 예코백, 로컬푸드

등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송욱 군수는 "강진 관광택시는 관광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현지 베테랑 드라이버가 안내하는 맞춤형 관광서비스이다. 관광택시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도답사 1번지 관광택시는 코로나19 이후 개별 또는 소규모 관광수요 증가와 강진이 초행길이라 운전이 힘들거나 관광지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어려운 관광객들을 위해 추진되는 서비스이다.

예약이 필수이며 예약전화는 1544-2834로 하면 된다.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택시 총 8대가 운행되며 운행요금은 시간임금제로 기본 2시간 4만 원, 3시간 5만 원, 5시간 8만 원, 8시간 12만 원, 1일 15만 원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영암군은 지난 8일 전동평 군수 주재로 손점식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하나된 국민 필요로운 복지영양 건설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 군정 주요업무 등 총 288건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지난 2년간의 군정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선7기 후반기 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구성의 시간을 가졌다.

군에서는, 올 상반기 동안 군정의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산업화를 통한 생명산업 집중육성과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미래첨단산업인 경비행기·항공 산업 등으로 미래 먹거리산업과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선7기 하반기에도 군민복지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경로당 점진적 부식비 지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종합복지관 증개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왕인문화축제가(2021~2022년)가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결정 되었으나 지역축제

공약사업·新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체크

심도 있는 토론회 쌍방향 업무보고회 실시

지난 5월 26일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연속 최고등급(SA)에 선정됐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적극행정 전국 지자체 1위 선정되는 등 위상을 한껏 높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어르신·미용권 및 목욕권 지원 사업,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건립과 교통복지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100원 택시, 장애인 콜택시, 전 통시장 나르미(美) 운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지원 사업으로 복지영양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중단없는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의 추진으로 농업의 6차

경쟁력 강화사업을 시행하여 명품축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영암읍 개신리~군서면 동구리), 월출산 100리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영암읍 개신리 산140번지 일원), 시간여행자의 정거장 조성(트로트 아카데미)사업 등 영암군민의 특별한 콘텐츠를 개발, 체류형 관광거점 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그동안 추진된 주요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전반적 추진실적이 눈에 띄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지속 계승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과감한 전략수정을 통해 민선 7기 후반기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삶 향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 '가리포랑 놀자' 첫 번째 행사 개최

완도문화예술협동조합(조합장 김봉호)이 주관하고, 완도군과 전라남도가 주최하며, 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0년 생생문화재 '가리포랑 놀자!' 첫 번째 행사가 지난 6월 6일 오후 7시 완도객사(도 문화재자료 제109호)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생생문화재 '가리포랑 놀자'는 지난해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취지로 문화재청과 지자체, 문화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문화재 활용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리포랑 놀자!'는 망갈레 재현, 다도 체험, 관소리 배우기, 음악 콘서트, 문화유적 탐방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가 지연되었으나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현충일에 첫 번째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이날 군외면 청해진 다원의 원불교 김택찬 교무님과 차와 명상을 배우는 '다도 시연'이 개최됐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배수개선사업 3개지구 선정...국비 334억 투입

침수피해 방지 통한 안정영농 도모...2023년 사업 완료

진도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에 의신·고군·군내 3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334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가 발생되는 50ha 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배

수로 등을 설치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3개 지구는 국비 334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고군지구(292ha)와 의신지구(137ha)에

각각 150억원과 84억원 총 234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하반기 세부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된 군내지구는 군내간척지와 배후지 100ha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공무원, '바다로 들판으로' 일손돕기 구슬땀

외국인근로자 고용 끊긴 일손부족 생업현장 공무원 지원



장흥군 공무원들이 일손부족으로 지역민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회진면행정복지센터(면장 임용현) 직원들은 5일 다시마 건조장을 찾아 마른 다시마를 거둬들이는 작업을 도왔다.

다시마는 회진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자 지역 특산품으로, 일손이 달리는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수확이 이루어진다.

이번 일손돕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차단돼 일손 부족이 심화돼 공무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4일 안양면행정복지센터(면장 송남신) 직원들은 고추농가를 방문해 지주대 설치와 주변 환경정비를 도왔다.

함평천지농특산품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